

대전고등학교총동창회 소식지

발행인 신현일(48회) 편집인 김순식(51회)
편집위원 이동혁(58회) 총동창회 사무국장
김용덕(56회) 재경동창회 사무처장
발행처 대전고등학교총동창회
대전시 중구 대흥로 121번길 8(대전고동창회관 2층)
TEL (042)257-0005 FAX (042)257-0518



발행일 2015년 11월 5일

제 167호

www.daego.kr

아아! 김상기 선배님...

(44회·前 대전MBC 사장)

신장암 투병 중 휠체어 타고 모교발전기금 1억 기탁... 나흘 뒤 하늘나라로

대전MBC 대표이사를 지낸 김상기(44회 졸업) 동문이 지난 8월 12일 오후 3시 서울 강남의 한 은행을 통해 모교발전과 후배들을 위한 학교발전기금 1억원을 기탁했다. 신장암 투병 중인 김 동문은 거동이 힘든 데도 휠체어를 타고 은행에 나와 모교에 발전기금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은 김종구(38회·전 법무부 장관) 상임고문과 신현일(48회) 총동창회장의 주선으로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조촐하게 치러졌다.

지난 10여년 동안 재경동창회의 1대1 결연장학금(연간 170만원) 지원에도 적극 동참해 온 김 동문은 5월에도 결연장학금을 보내면서 “몸이 더 나빠져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며 “내가 살아있는 지금 모교발전에 도움이 되는 길을 찾고 싶다”고 한 말을 이번엔 실행에 옮긴 것이다.



신현일 총동창회장이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모교 발전기금 1억원을 기탁한 김상기(44회) 동문의 손을 잡고 감사를 표하고 있다. 신 회장 왼쪽으로 김현규 교장, 김종구(38회·전 법무부 장관) 상임고문

김 동문은 기금을 전달하며 “침체돼가고 있는 모교가 국제고 전환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 돈이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는 후배들을 위해 쓰여 용

기와 의지가 있는 인재로 성장하는 데 밑거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발전기금을 전달받은 김현규 교장은 “김 선배님의 뜻을 받들어 어려운 학생들의 면학

을 위해 기금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현일 총동창회장은 “동창회 장학금 모금에 길을 밝혀준 분”이라며 병마도 어찌지 못한 김 동문의 모교사랑에 감사를 표했다.

모교와 총동창회는 김 동문의 뜻을 기리기 위해 한모생활관 학습실을 ‘김상기 스터디 홀’로 명명하고 조만간 개관식을 가질 예정이다.

김상기 동문은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및 경영대학원을 졸업하고 문화방송(MBC) 경제부장, 논설위원, 스포츠국장, 보도국장, 통일방송연구소장, 대전문화방송 사장을 역임했다.

김 동문은 발전기금 전달 나흘 뒤인 8월 16일(일요일) 오후 신장암으로 타계해 동문들의 마음을 더욱 안타깝게 했다. 김 동문은 대전공원묘원에 영면했다.

“대전고 국제고 전환 지지” 지역 주민들이 움직인다



모교의 국제고 전환이 대전광역시 교육청의 이해할 수 없는 ‘고시’ 발표 지연과 비협조로 지지부진해지자 중구 소재 건물주협의회와 상인연합회를 중심으로 한 지역 주민



들이 당국의 결단을 촉구하는 플래카드를 관내 곳곳에 내걸고 지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현재 플래카드가 게시된 곳은 중구에만 20여 곳에 이르고 있다.

황인무(54회) 국방차관, 김현집(55회)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박춘섭(57회)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취임

(날짜 순)

성명	기수	직책
송재희	53회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세 번째 연임(4/27)
고득영	62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한의약정책관 승진(5/6)
최양수	56회	한화 화약부문 대표이사 취임(6/14)
유상수	56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이사장 선출(7/16)
오상영	56회	하나외환은행 충청영업그룹 대표(전무급) 선임(9/1)
김현집	55회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취임(9/14)
권신원	74회	(사)한국청년회의소(JCI KOREA·JC) 제65대 회장 선출(9/21)
박병규	59회	초대 유성경찰서장 취임(10/1)
한건표	54회	한국소비자원 원장 취임(10/8)

 송재희	 한건표	 황인무	 김현집	 여형구	 유상수
 최양수	 박춘섭	 윤창현	 박병규	 고득영	 권신원
윤창현	58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 선출(10/12)			
황인무	54회	국방부 차관 취임(10/19)			
여형구	56회	2018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사무총장 내정(10/26)			
박춘섭	57회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취임(10/27)			

2015 대능가족 등반대회 대전·재경 동문 1000여명 참가

2015 대능가족 등반대회가 10월 25일(일) 오전 10시 대전 보문산에서 열렸다. 산행에는 신현일(48회) 총동창회장을 비롯, 28회 박영규 고문부터 93회 김도경 동문까지 1000여명의 동문 및 동문가족이 참여, 함께 보문산을 오르며 친목을 다졌다.

이날 행사는 먼저 대전동문들이 보문산 보운대에 집결해 등록을 마치고 재경동문의 도착을 기다렸다가 신현일 총동창회장의 개회선언으로 시작됐다. 이어 노경극(81회) 모교 야구부 코치의 구령에 맞춰 간단한 준비운동을 한 후 각자 체력에 맞는 코스를 택해 등반을 시작했다.

등산을 마친 동문들은 모교 5층 급식실에서 육개장으로 점심식사를 하고 소운동장에

마련된 기별 텐트에서 동기들과 오붓한 시간을 가졌다. 2부 행사는 신현일 총동창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김현규(53회) 모교 교장이 국제고 추진 경과를 설명하자 노고를 위로하는 박수가 터져나와 모교 부활을 염원하는 동문들의 열망을 엿볼 수 있었다.

이날 기수별로 선정한 최다 참가기상은 40대 기수에서 48회가 1위, 41회가 2위를 차지했고, 50대 기수에서는 58회와 56회, 60대 기수에서는 62회와 68회가 각각 1, 2위를 차지했다. 70대 기수에서는 70회가 1위를 차지했다.

대망의 행운권 추첨에서는 송철수(51회) 동문이 대상에 당첨돼 삼성 43인치 LED-TV를 부상으로 받았다.



송년모임

총동창회

12월 17일(목) 오후 6시
유성 리베라호텔 2층
다이너스티홀

재경동창회

12월 14일(월) 오후 6시
서울 조선호텔 지하 1층
그랜드볼룸

축하합니다!

44회 50주년 기념식

44회 동창회 졸업 50주년 기념행사가 5월 16일(토) 모교 강당 및 교정에서 열렸다. 선·후배 동문들의 축하 속에 열린 이날 행사는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가운데 반가운 해후와 학창시절 회상, 화합의 시간으로 꾸며졌다.

이 자리에서 44회 동문들은 행사준비를 하느라 수고한 이현구 동기회장 겸 총무, 광동군 재경44회 회장, 김전식 재경 총무에게 큰 박수로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54회 졸업 40주년 기념행사 동기 225명 참석

54회 동창회의 졸업 40주년 기념행사가 10월 9일(금) 오후 4시 유성 리베라호텔에서 성대하게 열렸다.

기념식에는 담임선생님 아홉 분과 신현일(48회) 총동창회장, 김현규(53회) 모교 교장, 기념행사를 준비 중인 55회와 64회 회장단 등 내빈 20여명과 동기 225명(대전권 110명, 서울권 115명) 등 총 2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미국, 모로코, 캄보디아 등 해외 거주 동기 4명을 포함해 제주, 부산, 진주, 밀양, 울산, 원주, 춘천, 충주, 전주, 청주,

천안, 서산, 장항 등 경향 각지의 동기들이 자리를 함께해 졸업 40주년을 자축했다.

기념식에 이어진 축하공연은 초청가수 외에 다양한 재능을 가진 동문들이 함께 참여하는 무대로 꾸며져 즐거움과 흥겨움을 더했다. 행사가 끝난 뒤엔 작고하신 은사님 댁을 방문, 사모님을 위로하고 기념품을 전달했다.

54회 동창회는 이날 행사비를 아껴 모교 발전기금과 동창회발전기금으로 각각 500만원을 기탁했다.



알림

64회 졸업 30주년 기념행사 11월 28일 리베라호텔

- | | |
|-------------------------------|--------------------------|
| ◇준비위원장: 박범정(010-2809-0262) | ◇30주년 행사 계좌 |
| ◇부위원장: 이명만 나호열 정필석 박종민 | 하나은행 654-910316-74507 |
| ◇고문: 최보성 최규성 김강우 이육재 유동준 | 예금주 박병천 |
| 유진 유제일 유종원 김문기 권태형 최승진 | ◇1부 기념식(17:30~18:30) |
| ◇간사(총무): 이상훈 서동환(재경) | 은사님 소개, 내빈 축하, 발전기금 전달 등 |
| ◇64기 회장: 박범정 최태욱(재경) | ◇2부 만찬(18:30~19:30) |
| ◇재무: 박병천 | 반별 기념 촬영, 화합의 시간 |
| ◇일시 및 장소: 11. 28. 17:30~21:00 | ◇3부(19:30~21:00) |
| 대전 리베라호텔 2층 다이너스티홀 | 동기 및 가족 장기자랑, 초대가수 공연 |

알림

74회 졸업 20주년 기념행사 11월 14일 모교 강당

- | | |
|-------------------------|-------------------------------|
| ◇회장: 황윤선(010-7474-8700) | ◇일시 및 장소: 11. 14. 17:00~20:00 |
| ◇부회장: 서유덕 | 모교 강당 |
| ◇고문: 이승찬, 김문석 | ◇20주년 행사 계좌 |
| ◇이사: 주봉철 이동석 양찬오 황대하 | 신한은행 110-443-828149 |
| 박형수 박원철 정범준 김대성 백홍기 | 예금주 박형수 |
| 강남구 구기호 이종현 | ◇1부 기념식(17:00~18:00) |
| ◇총무: 홍성룡 | 은사님 소개, 내빈 축하, 발전기금 전달 등 |
| ◇감사: 최양환 | ◇2부 만찬(18:00~20:00) |
| ◇재무: 박형수 | 기념 촬영, 화합의 시간 |

임원·기별동창회 회장단 연석회의... 의결기관 공식 추인

총동창회 임원 및 기별동창회 회장단 연석회의가 6월 30일(화) 오후 6시 30분 동창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8년 넘게 총동창회 사무국장으로 헌신한 민장홍(56회) 동문의 마지막 사회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신현일(48회) 총동창회장과 34회 김용환 동문을 비롯, 막내인 76회 이택주 동문까지 64명의 임원이 참석했다.

본 회의에 앞서 일부 동문이 제기한 지난 2월에 열린 연석회의에서의 국제고 전환 등의 결정이 회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에 대해 사무국에서 연석회의 결정의 적법성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표결에 부친 결과 42명의 찬성으로 연석회의가 의결기관으로 공식 추인을 받았다.

이날 상정된 안건은

◇첫째, 가칭 '대전고 국제고 전환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에서 요청한 임시총회 소집에 관한 건'

비대위가 임시총회 개최시 요구한 주된 심의안건은 '모교의 국제고 전환에 관하여 지금까지의 추진과정을 원위치로 돌리고 처음부터 토론회 및 홍보 후 투표로 결정하자는 내용'으로, 법률자문 결과 '임시총회 소집 요건이 안 된다'는 의견을 받았지만 이날 안건으로 상정해 열린 토론 후 표결에 부쳐 찬성 18표, 반대 41표로 부결돼 임시총회를 열지 않기로 했다.

◇둘째, '대전고 국제고 전환에 관한 건'

총동창회(30일)와 재경동창회(29일)는 임원 및 기별회장단 연석회의와 긴급임원회의를 열고 안건으로 상정된 모교의 국제고



특수목적고등학교 전환·설립 신청에 대한 교육부의 조건부 동의(학생수 600명 → 480명)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47명의 찬성

으로 '100년 역사의 대전고 정체성(교명 등)이 국제고 전환 이후에도 계속 유지된다'는 조건으로 동의하기로 결정했다.

2015 정기총회 및 모교방문의 날 성황

총동창회 주최 '2015년도 정기총회 및 모교방문의 날' 행사가 5월 30일(토) 오후 4시 동문 및 동문가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모교 강당에서 열렸다.

퓨전 걸그룹 '미스 트로트'의 축하공연에 이어 시작된 정기총회는 신현일(48회) 총동창회장의 인사말, 총동창회 명예회장인 김현규(53회) 모교 교장의 환영사, 김각영(41회)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회장의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송자(34회) 전 교육부

장관에게 '자랑스러운 대능인상'을 수여했다. 또 기별동창회와 총동창회 발전에 공로가 큰 김종남(46회), 신창섭(53회), 김현채(68회), 이주훈(72회) 동문에게는 공로패를 증정했다. 이어 2014회계년도 사업 및 결산보고, 2015회계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등이 이루어졌다.

정기총회가 끝난 뒤엔 만찬과 행운권 추첨, 최다 참가기상을 시상했다. 이날 행사에는 재경 동문 200여명도 자리를 함께했다.



설립일 2008. 12. 23



www.ktca.or.kr

사단법인 한국기술사업화진흥협회

기술사업화, 선진한국의 미래!

협회장 김순식(51회) 총동창회 사무총장
사무처장 한상언(56회)

수행 사업

- 기술사업화지원
- 정책연구
- 교육지원
- 네트워크구축
- 정보운영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동 23-14 대전경제통상진흥원 604호, 전화 : 042)864-5900, 팩스 : 042)864-5901

2015년 10월 15일 세이박스 인천 송도점 오픈

타임문고(갤러리아백화점)
세이박스 둔산점(홈플러스 법원점)
세이박스 문화점(세이백화점)
세이박스 세종점(2014년 11월 오픈)
세이박스 송도점(2015년 10월 15일 오픈)

변재훈(58회) 010-4767-4101

* 출판 및 유통 문의에 친절히 상담해드립니다.



“모교가 옳은 결정을 하면 존중하고 밀어줘야죠”

모교에서 추진하는 국제고 전환이 지지부진하게 된 데는 모교와 총동창회에 불만을 가진 일부 동문들의 극렬한 반대가 영향을 미쳤다는 게 중론이다. 이들은 처음부터 모교의 미래보다는 공교육이나 지역발전과 같은 포퓰리즘성 의제를 앞세워 교묘히 사태를 키워왔다. 불순한 정치적 동기를 감춘 채 외부단체와 결탁해 모교 패리기를 멈추지 않았다. 이를 계기로 대전고에 비우호적인 세력들이 목소리를 내면서 반대파들이 만든 자칭 ××시민모임의 주장이 마치 여론인 것처럼 포장돼 퍼져 나갔다. 이 바람에 총동창회 업무에 차질을 빚으면서 동창회 고유의 기능이 발목을 잡혀 개교 100주년 기념행사 준비에 적신호가 켜졌다. 대사를 앞두고 고민에 빠져 있는 신현일(48회) 총동창회장을 만났다.

—국제고 전환 문제로 총동창회 업무에 차질이 빚어지지는 않았습니까?

“당연히 영향이 있죠. 국제고 전환은 모교에서 추진하는 일이지만 학교와 동창회에 불만을 가진 일부 동문들이 개입해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어버렸으니 총동창회 입장에서 그냥 보고만 있을 수가 없게 됐어요. 더구나 지금은 이 문제가 외부 여러 기관으로까지 확산돼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일손이 부족한 모교에만 맡겨 두기에는 사안이 심각해 총동창회에서 도와주다 보니 상황이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처음부터 조심스럽게 접근했어야 할 문제인데 내부에 화근이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건 반대파 동문들의 태도입니다. 처음엔 모교의 미래를 걱정하는 충정일 것으로 생각해 이들이 요구하는 대로 여러 차례 만나 대화를 해봤는데 이 사람들이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심야에 교문 앞에서 모교 후배들을 선동하는 전단지들을 돌리고, 피켓 시위를 하는 것도 모자라 계속 밖으로 돌면서 외부 단체와 손 잡고 끈질기게 방해공작을 하는 걸 보면서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화하자는 건 제스처였고 정치적인 목적이 숨어있다는 생각을 지금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반대파 동문들이 모교 교장과 총동창회를 싸잡아 비난했는데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총동창회 임원 몇 명에서 작당해 밀실야합을 했다는 겁니다. 또 이 분들이 사익을 추구했다는 것인데 말이 안 되는 거죠. 정년이 얼마 안 남은 교장 선생님이 지금보다 더 올라갈 자리가 어디 있다고 욕심을 부리겠습니까. 저요? 총동창회장이 돈 버는 자리입니까? 지금까지 총동창회장을 지낸 선배님들 중에서 모교를 이용해 돈 번 분이 있습니까?

신 현 일(48회) 총동창회장

모교의 국제고 전환이 난항을 겪고 있다. 당초 순조로울 것으로 예상했던 진행과정이 일부 동문의 극렬한 반대가 밀미가 돼 대전광역시 교육청이 고시를 미루는 등 비협조로 돌아서고, 시의회의 공유재산 심의과정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일이 꼬여버렸다. 이 문제로 노심초사하고 있는 김현규(53회) 모교 교장과 신현일(48회) 총동창회장을 만나 현재의 심경과 향후 대책을 들어보았다.

〈편집자 주〉

기가 찰 노릇이지요. 사업하기도 바쁜데 시간 뺏기고 제돈 써가며 욕이나 안 먹으면 다 행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인생살이는 사필귀정입니다. 결국 나중에 다 밝혀집니다. 그 사람들이 왜 그랬는지. 제 앞에서 한 얘기도

“제 생각도 똑같습니다. 교육감의 속내를 모르겠어요. 교육청의 행정절차에 따라 모든 것을 진행했는데 이제 와서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고시를 안 하고 있는데 도리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봅니다. 교육부나 시의회의



“시 교육청의 告示 지연 직무유기 아닌가 학교서 행정소송 땀 최고 수준 법률지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특하면 녹음 파일이 있다고 겁을 주는데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다고 딱 잡아떼지는 못할 겁니다.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럿이서 함께 들었으니. 법적으로는 몰라도 양심이 있으면 사과할 건 사과하고 책임질 건 책임져야지요.”

—국제고 전환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순리대로 가야 하고 그래야 될 겁니다. 교장 선생님이 확고한 철학과 의지가 있으니까 흔들림없이 갈 걸로 봅니다. 그런데 난관이 많아요. 행정절차 문제도 있고, 최악의 경우 법정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내부에서 조용히 처리할 수 있었던 문제를 외부 기관에 공을 넘겨 버렸으니 이제는 우리 뜻대로 할 수도 없게 됐어요. 동문 여러분이 힘을 모아주셔야 합니다. 우리만 뭉치면 잘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우리 대능인들이 당당하게 갈 길을 가면 밖에서도 이해하고 협조해줄 것으로 봅니다.”

—동문들이 헛갈려하는 게 교육감이 왜 고시를 안 하느냐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입장은 입장이고, 교육청의 뉘는 진행해야 합니다. 핑계대지 말고 일단 고시부터 하라는 것이 저희 동창회의 입장입니다. 일을 복잡하게 만든 데 대해 교육청도 일말의 책임을 느껴야 합니다. 우리 동문들도 교육당국의 명분없는 행정이 물고 올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채찍을 들 때는 과감하게 들어야 합니다.”

—100주년 기념사업 준비에 차질이 있겠죠?

“그게 제일 걱정이죠. 100주년 기념사업은 처음부터 이벤트성 행사를 최소화하고 내실 위주로 치르려고 생각했지만 이마저도 시간이 촉박해 차질이 불가피하게 생겼습니다. 날씨는 점점 다가오는데 국제고 전환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어서, 이 문제가 빨리 풀려야 마음을 다잡고 준비에 올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동문들이 피로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태가 길어지면 안 되는 거지요. 다들 살기가 어렵다고 아우성인데 짜증나는

일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지만 국제고 전환 문제가 해결되기 전이라도 100주년 기념사업 준비는 계속해야 하기 때문에 동문들의 관심과 협조가 더욱 더 절실합니다. 조만간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마스터 플랜을 확정해 보고 드리고 추진에 속도를 낼 생각입니다.”

—드디어 지역 주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아무래도 파장이 크지 않겠습니까?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주민들까지 나서서는 안 될 일이잖아요. 그런데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소문이 나니까 앉아서 손해볼 수는 없다는 심정에 나서지 않았을까 추측해 봅니다. 교육문제는 교육논리로 풀어야지 정치논리가 개입하면 문제가 복잡해지게 돼 있어요. 반대파들이 내세우는 명분 중 하나가 중구의 유일한 공립고등학교라는 건데 국제고도 엄연히 공립입니다. 또 귀족학교라서 안 된다던데 일반학교와 등록금이 같은데 그게 왜 귀족학교라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럼 외고나 과학교도 모두 귀족학교인데 왜 폐지운동을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동문 대화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국제고 전환 문제가 불거지기 전까지는 우리 동문들이 특정 사안을 놓고 분열된 적이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이 문제를 빨리 풀어야 합니다. 동문 여러분도 각자 생각이 계시겠지만 크게, 멀리 바라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동창회 임원이나 기별 대표를 믿어주셔야 합니다. 이 분들은 자기 돈 쓰고 시간을 쪼개 모교와 동창회를 위해 봉사하는 분들입니다. 이 분들이 무슨 이득을 얻겠다고 국제고 전환을 작당해서 추진하겠습니까? 당연한 일이지만 임원·기별 대표 연석회의가 열릴 때마다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그러나 대다수가 찬성하니까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거지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다수결을 무시하면 그게 어떻게 양식있는 동문이고 민주시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국제고 전환에 대한 회장님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찬성입니다. 이유는 싱가포르 기업을 파트너로 30년째 사업을 해오며 그 나라의 성장 역사를 똑똑히 봐왔기 때문입니다. 싱가포르의 국부(國父)로 추앙받는 리관유 수상이 국비로 외국 유학을 보낸 젊은 엘리트들이 돌아와 오늘의 싱가포르를 일궈냈습니다. 천연자원 하나 없고 도시 국가에 불과한 싱가포르가 탈(脫)아시아 국가로 급성장한 배경을 잘 알고 있는 저로서는 국제감각으로 무장한 젊은 인재를 키워야 우리나라의 미래가 열린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국제고 전환은 대전고의 미래가 걸린 마지막 기회”

—국제고 전환과정의 진통이 예상보다 큼니다. 동문이면서 학교운영을 책임진 교장으로 서 누구보다도 마음고생이 심하실 텐데요.

“모교를 지금보다는 더 나은 학교로 만들 자는데 동문 모두가 한 목소리를 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데 생각이 미치면 아쉬움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앞으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난 과거는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는 기회 있을 때마다 대전고의 정통성을 훼손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고, 여러 차례 토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교가 폐교된다’ ‘모교를 팔아 먹는다’ ‘모교를 팔아 승진하려 한다’는 등 거짓 선동으로 교장을 욕하는 유인물을 교문에서 어린 후배들에게 뿌리는 반대파 동문들을 보면서 말할 수 없이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반대파 동문들의 행동이 잘한 것인지 아니면 잘못되었는지는 국제고 전환 문제가 매듭된 이후에라도 총동창회 내부에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의 솔직한 심정은 일부 반대파 동문들의 분열적 행동으로 인해 개교 100주년 기념행사 준비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교육자로서 양심과 소신에 따라 민주적 절차를 거쳐 결정한 선택이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제가 퇴직한 후에 ‘당신은 모교 교장으로 재직하면서 가장 잘한 일이 무엇이나?’고 묻는다면 서슴없이 ‘국제고 전환 결정이었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또 누가 ‘가장 안타까웠던 일이 무엇이나?’고 묻는다면 ‘국제고 전환에 실패한 일이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저는 교육자로서 양심을 걸고 모교의 국제고 전환이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책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일부 동문들의 집요한 반대가 발미를 쥐 시의회에서 예산문제로 발목이 잡혀 있고, 교육당국에서 이들이 만든 ××시민모임의 주장이 반대 여론이라는 이유로 고시를 미뤄 지역 사회의 뜨거운 감자가 되어 있지만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모교의 국제고 전환은 학교의 미래를 위해 현재의 입시제도 하에서 모색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믿음 때문에 저로서는 최선의 선택이었고, 단 한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일부 반대파 동문들로부터 인신공격까지 받지 않았습니까?

“국제고 전환 추진과정에서 여러 동문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모교와 동창회, 그리고 지역사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바람직합니다. 반대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당한 절차를 거쳐 공정한 합의가 도출되었는 데

김현규(53회) 모교 교장

김현규(53회) 교장은 매우 지쳐보였다. 평소 학교운영이나 진학지도 등 교육문제에 열변을 토하던 열정적인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 체념한 것일까? 그건 아닌 것 같았다. 문득문득 무심한 듯한 눈빛 속에서 분노의 그림자가 느껴졌다. 일부 동문들의 양식이 의심스러운 막말과 소영웅주의적 행동에 실망했다고 했지만 모교 발전을 위한 그의 신념만큼은 변한 게 없는 것 같았다.

〈편집자 주〉

도 시민단체의 탈을 쓰고 특정 교사단체와 결탁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해공작을 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앞으로 저는 모교 교장으로서는 순수하게 모교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국제고 전환을 반대

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방해공작이 없이 추진되었다면 지금쯤 모교의 국제고 전환이 확정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일부 동문들의 반복된 집회와 민원 제기, 고발 등으로



“반대파 동문모임이 시민단체로 둔갑해 고발한 11명 중에 일반인은 1명도 없어”

하고 계신 동문들의 충정도 중요한 만큼 이분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할 것입니다. 다만 저는 잘못된 방법과 행동으로 문제를 증폭시켜 온 일부 인사들의 일탈행위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검토를 한 후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교장의 국제고 신청이 직권남용이라고 고발한 ××시민모임 인사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시민모임이라고 내세웠지만 고발장에 서명한 11명 모두가 반대파 동문들입니다. 총동창회의 결정에 참여했던 일부가 자신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자 밖으로 뛰쳐나가 시민단체로 위장해 활동하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 드리는데 제가 모교 교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모교에 뭐 하나 보태준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언제부터 이들이 교육 문제나 모교발전, 지역발전에 그렇게 관심이 많았는지 되묻고 싶은 심정입니다.”

—국제고 문제가 일부 동문들의 반대가 발미가 돼 여러 기관이 개입하면서 복잡한 양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보기 바랍니다. 저희가 국제고 전환을 신청하게 된 계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학교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모교는 개교한 지 100년이 다 되어갑니다. 1917년에 개교했으니 올해 98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명문이라는 자부심만 있었지 시대의 흐름에는 둔감했습니다. 학령인구 감소와 열악한 학교 주변 환경으로 인해 변화하지 않으면 자연도태는 시간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변화를 거부했기 때문에 고사(枯死)일보 직전까지 왔습니다. 학생수의 감소는 지금 단계에서는 도무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문제입니다. 또 모교가 위치해 있는 대전 동부지역은 고등학교 밀집지역이긴 하지만 학생수 감소와 학력 저하가 서부지역에 비해 훨씬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동부지역에서만 매년 남학생 숫자가 모교 입학생 숫자에 버금가는 420명 이상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매년 1개의 남자학교가 없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성적은 그 다음일 만큼 절박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입니다. 모교는 타 지역의 국제고에 비해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 앞으로 더 우수한 동문을 배출해낼 수 있습니다. 타 지역 국제고는 황무지나 다름없는 신설 학교로 출발했지만 모교는 100년 동안 배출한 3만8000여 동문의 튼튼한 네트워크와 연간 3억원에 이르는 동문들의 재정적 후원이 있습니다. 이를 잘 활용한다면 모교뿐만 아니라 대전지역 전체의 교육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때문에 국제고 전환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해내야 합니다. 지금 꼬여있는 실타래를 하나 하나 풀어가다 보면 잘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그러자면 동문들의 단합된 힘으로 적극적인 도움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동창회와 동문들에게 서운한 점이나 바라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개교 100주년을 2년도 채 안 남긴 역사 깊은 모교가 지금의 명문고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동문들의 탁월한 능력과 노력 때문입니다. 현재는 동문들이 이루어놓은 명성으로 근근히 버티고 있지만 이젠 그럴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변화가 싫다고 발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친다면 미래가 암담합니다. 이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오 한마디 해주시죠.

“국제고 전환을 계기로 새로운 100년을 만들어가는 모교가 될 수 있도록 동문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모교 교장이면서 동문으로서 정통성을 훼손하지 않는 국제고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미래 비전이 확실한 대전고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인이 누구든 최선 다해 해결해주려 노력합니다”

우수 의정활동 단골 선정 이명수(52회) 의원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여러 차례 뽑혔습니다. 비결이 있나요?

“우리 동문들과 충청도민, 그리고 아산시 민들께서 항상 응원해주시고 신뢰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매일매일 최선을 다한다’는 각오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입법과 정책개발은 국회의원의 당연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활동이기 때문에 맡은 바 소임을 다했을 뿐이고, 이러한 노력들을 높게 평가해주신 것 같습니다. 항상 초심을 잃지 않는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국민들의 정치불신 풍조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정당지지율 조사 등을 보면 어느 정당도 지지하지 않는 무당파가 4분의 1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국민들의 정치불신이 매우 심각한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정치인으로서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아쉽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이 정치권과 정치인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

니다. 입만 열면 국민을 위해서라고 말하면서도 결국에는 ‘당리당락’에 따라 움직이는 퇴행적 구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치로 거듭나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권력구조로 개편되어야 합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어떤 경우든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 진행돼야 할 것입니다.”

-소통이 화두인 시대입니다.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정치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소통입니다. 정치불신의 가장 큰 이유가 서로 소통되지 않는, 즉 ‘불통’으로 인해 오해가 쌓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지역주민이나 국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출·퇴근시 KTX나 광역철도 등을 이용하며 여러 분야의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와든 제가 먼저 다가가서 대화하고 경청하는 열린 정치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골치 아픈 민원인은 어떻게 대하시는지?

“사전에 약속을 하고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무작정 찾아와 막무가내로 만나기를 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 다음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먼저 약속이 되어 있는 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불속 찾아온 민원인의 얘기를 청취합니다. 이야기를 듣다보면 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이해하고 긍정적 시각에서 되는 방향으로 조치를 해드리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제 힘으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왜 안 되는지 고민해보고 그 이유를 꼭 통보해 드립니다. 그런데 대부분 민원이 개인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들이라 국회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이때는 잘 이해서시켜서 지자체 담당자를 만나도록 연결시켜 드리기도 합니다.”

-모교와 동창회에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교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공직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선·후배님들이 많은 도움을 주셨고, 퇴직 후 정치에 입문



할 때도 우리 동문들이 잘 이끌어주셨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 베풀어주신 후의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 의원에게 모교는 어떤 존재인가요?

“모교는 저에게 있어서 어머니와 같은 곳입니다. 고향인 아산을 떠나 타지에서 외롭게 지내면서 그나마 마음을 붙이고 생활하게 된 것은 모교인 대전고 덕분입니다. 어머니 품처럼 모교는 저의 영원한 안식처입니다. 국적은 바꿀 수 있어도 학적은 바꿀 수 없다고 하는 말처럼 자랑스러운 모교 덕분에 오늘의 제가 있기 때문에 도울 일이 있으면 힘껏 돕겠습니다.”

중진 정치인인 이명수(52회·충남 아산) 의원과 소장파인 이장우(63회·대전 동구) 의원의 공통점은 동창회와 모교에 관심이 많고, 동문들의 고충을 해결해주는 데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의정활동에도 적극적이어서 지역민은 물론 일반 국민들로부터도 호평을 받고 있다. 모교 재학 시절부터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현재까지 두 동문 의원의 인생역정과 근황을 들어보았다.

〈편집자 주〉

“예산배정에서 대전·충청권에 불이익 없도록 할 것”

소신 강한 열혈 소장파 이장우(63회) 의원

-먼저 근황을 소개해주실까요?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으로 새누리당 대변인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대전지역 예산 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소임을 다하는 가장 큰 힘은 변함없이 성원해주시는 동문님들이 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총동창회장님을 비롯한 대능가족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학창 시절을 어떻게 보내셨나요?

“제 고향은 충남 청양입니다. 모교에 진학하면서 대전으로 와 줄곳 대전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고교 시절은 많은 추억과 자아를 새롭게 발견하는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 있을 겁니다. 저는 당시 역사소설에 빠져 책을 가까이 하며 지냈던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대학 때는 총학생회 회장으로 87년 6월 민주항쟁에 나서면서 지도자는 밀실에서 좌고우면하기보다 행동으로 실천하는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고 앞에

서서 약속한 일은 꼭 실천하고, 말이 아닌 행동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교훈을 얻은 게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정치권 입문도 동문을 통해서였다면서요?

“대학 은사이신 37회 오웅준 대전대학 총장님께서 41회 이양희 의원님 비서로 저를 추천하셔서 정치와 인연을 맺었습니다. 그 후 2006년 민선 4기 동구청장으로 재임하며 활력을 잃고 침체에 빠져 있던 동구를 새롭게 디자인한다는 목표로 복합고속터미널 사업을 추진해 대전의 관문으로서 위상을 되찾았습니다. 또 넓은 동구 청사를 가오동으로 이전해 동구에 1000억원 가까운 자산 증가를 가져오게 한 게 기억에 남습니다.”

-초선 국회의원으로서 성과를 자평한다면?

“동구를 침체에서 도약의 길로 나서게 하기 위해서는 열악한 주거환경의 개선과 도시기반시설 정비에 꼭 필요하다고 보고 실행에 옮겨 10년간 표류하던 대신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대동2지구사업의 결실을

맺게되었고, 나머지 지구도 금년 내로 가시화된 로드맵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국가예산을 다루는 국회 예결특위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동서 단절과 안전에 문제가 있던 홍도육교 지하화 예산 397억원을 확보한 것도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예결위에 있을 때 대전시 예산을 처음 2조원대에 진입시키면서 대전·충청지역이 정부예산배정에서 더 이상 영·호남에 밀리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앞으로의 과제가 있다면?

“지금 진행 중인 대전역 명품역사 건립과 민간투자를 유치해 대전역의 면모를 일신하는 데 전력투구하고 있습니다. 11월로 예정된 민간 공모가 성사되면 대전역 인근은 모두가 부러워하는 상업과 주거, 서비스 중심으로 재탄생할 것입니다. 또 17개 도시가 경합을 벌이고 있는 철도박물관 유치, 충청권 광역철도망 조기 확정, 대전도시철도 2호선의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대전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프로젝트를 준비 중입니다.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적으로 부강



한 대전, 서민들과 청년들이 신명나는 동구를 만들고 싶습니다.”

-매사에 열정적이신데 좌우명이나 보좌진들에게 강조하는 말이 있나요?

“저는 국회의원 선거 때 ‘일한 사람, 일할 사람’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국민들이 저에게 일할 수 있도록 당선시켜주신 만큼 한 치의 게으름도 없이 밤을 낮 삼아 일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정치를 시작하면서 ‘지공무사(至公無私)’를 좌우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지극히 공변되어 사사로움 없이 공직자의 삶을 살겠다’는 저의 다짐입니다. 보좌진들에게도 “즉시하고, 최선을 다하며, 끝까지 하라”고 늘 강조합니다.



메르스 사태 극복에 큰 도움을 준 국군 의료지원팀의 부대 복귀를 박수로 환송하고 있다. 사진 오른쪽에서 다섯 번째가 오수정 동문. 오 동문 왼쪽이 박병석(49회) 전 국회의장과 권선택(53회) 대전광역시장

“대전시민과 동문들이 도와줘 메르스를 이겨냈습니다”

-병원 개원 직후 터진 메르스 사태로 곤욕을 치르셨지요?

“어둡고 긴 터널을 무사히 빠져나온 기분입니다. 당시에는 한 치 앞도 내다 볼 수 없을 만큼 힘들었지만 4개월이 지난 지금 돌이켜보면 ‘그래도 잘 이겨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는 ‘메르스만 이겨내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만큼 긴박하고 하루하루가 힘겨웠습니다. 하지만 무사히 코호트(Cohort·관련된 특성을 공유하는 대상의 집단) 격리가 끝나고 보니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월 9일 진료를 개시한 뒤 3개월간 쌓아온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없었지요. 6·25가 끝나고 휴전이 되면서 사람들이 힘든 가운데도 악착같이 삶의 터전을 일군 것처럼 모든 병원 직원들이 지치고 힘들었지만 다시 힘을 내야 했습니다. 그로부터 다시 3개월여가 지난 지금은 우리가 목표했던 정상에는 아직 오르지 못했지만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면서 갖게 된 자신감과 용기, 단결력으로 직원 모두가 희망을 가지고 전진하고 있습니다.”

-메르스 사태로 얻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아침차게 출발했던 3개월을 메르스 사태로 잃어버렸습니다. 3월 9일 진료 개시 이후 병원을 찾는 환자가 급증해 병원이 활기를 띠었고 국내 최초의 노인질환 중심 종합병원으로서 입지를 다지고 있었어요. 특히 내외빈과 주민 1000명 등 1500여명이 함께 한 개원식과 주민 초청 대잔치 때는 보기 드문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열흘 후 메르스 사태가 불거지면서 모든 것이 거품처럼 사라졌지요. 하루 400여명이 찾던 병원이 10명도 찾지 않는 곳이 되어 버렸고, 수술 중단은 물론 응급실과 외래진료실까지 불이 꺼졌습니다. 더구나 메르스의 진원지인냥 알려지는 바람에 언론과 시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느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얻은 것도 있습니다. 대청병원이 군·관·민의 힘으로 메르스 사태를 성공적으로 이겨낸 국내 최초의 의료기관이라고 평가받은 것입니다. 또 감염관리에 관한 노하우를 터득한 점도 큰 성과지요. 코호트 격리를 겪으며 전 직원이 병원 내 감염, 특히 메르스에 대한 대처방안

오 수 정(44회) 대청병원 원장

지난 호에 이어 오수정(44회·대청병원 원장) 동문의 인터뷰 기사를 연거푸 내보내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오 동문은 모교 출신 의사 중 가장 큰 규모의 병원을 건립한 입지전적인 인물로, 메르스 사태의 직격탄을 맞아 하루 아침에 몰락할 위기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다. 오 동문의 드라마틱한 메르스 극복기를 육성으로 들어 보고, 동문들의 격려와 성원을 전하기 위해 인터뷰를 요청했다. <편집자 주>



장종태 서구청장이 메르스 사태 극복에 헌신한 국군 의료지원팀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을 온몸으로 터득했습니다. 메르스에 관한 매뉴얼이 전무하던 시절, 우리가 처음으로 시도한 뒤 효과가 입증돼 타 병원에서 우리 시스템을 적용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격려와 성원도 메르스 사태로 얻은 것 중 하나죠. 메르스로부터 대전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코호트 격리를 선택했던 우리의 진심을 알아주셔서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병원 이미지 타격은 좀 회복이 됐나요?

“대전에서 메르스 확진환자가 발생하고 추가 감염자가 나오면서 처음에는 대청병원이 ‘메르스의 진원지’인 듯 언론과 지역주민들의 시선이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대청병원도 피해자’라는 인식이 커지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어려운 환경에서 메르스와 싸우는 직원들의 노고가 알려지면서 격려와 성원이 이어졌습니다. 6월 29일에 코호트 격리가 끝나고 정상진료를 시작하며 그동안 우리 병원을 이용했던 환자와 내원객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고 많았지만 병원에는 시간이 조금 더 지난 다음에 가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후 두 달이 지나면서 다시 병원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늘어났고, 지금은 목표치의 80~90%가량 회복했습니다.”

-국내 1호 노인질환 중심 종합병원을 지향하고 있는데 평가는 어떻습니까?

“우리 병원은 국내 최초로 노인질환을 중점적으로 치료하는 종합병원을 표방하며 지난 3월 9일 첫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않게 메르스 사태를 겪게 되면서 ‘노인질환 중심 종합병원’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른 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병원을 찾는 연령대가 60대 이상 이 많고, 또 이 분들의 방문이 점차 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노인질환은 젊은층이나 일반환자를 치료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고 위험합니다. 두 개 이상의 질환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많고, 젊은 사람들에 비해 면역력이 저하돼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길어지면 수술 후 합병증 발생률이 높아 정확하면서도 보다 빨리 수술을 마쳐야 하는 것도 이유고요. 때문에 우리 병원은 실력이 우수한 의료진을 중점 배치했고 의료장비와 의료시설도 최고, 최신으로 구비했습니다. 현재 명실공히 노인질환 중심 종합병원이 되기 위한 여러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환자가 한 진료실에 있으면 해당 진료과의 의사가 찾아와 진료하는 통합진료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노인환자는 두 개 이상의 복합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며 진료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줄 생각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여러 진료를 함께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비운 뒤 땅이 굳는다고 했는데 앞으로 병원을 어떻게 키워 나갈 생각이신가요?

“우리 병원은 노인질환을 중점적으로 치료하는 종합병원입니다. 노인질환은 말 그대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발병률이 높아지는 모든 질환을 말합니다. 관절질환을 비롯해 척추질환, 전립선질환, 치매, 두통, 뇌졸중, 난청, 각종 암, 고혈압, 당뇨와 같은 성인병 질환이 대표적입니다. 우리 병원은 노인질환을 가장 잘 치료하기 위해 건물 설계 단계에서부터 환자와 의료진의 동선을 고려해 진료실과 검사실 배치를 최적화하고 의료장비를 배치했습니다. 또 노인질환을 세부전공해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의료진들로 구성돼 있고 중부권 최고의 시설과 다양한 프로그램, 고품격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검진센터를 통해 질병을 조기 발견하고 치료함으로써 100세 시대를 선도하는 병원이 되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병원 설립자 이전에 의사이신데요.

“의사로 생활한지 50년이 넘었습니다. 외과 의사로서 수술한 환자만 수천명에 달합니다. 특히 대청병원의 전신인 서부병원을 개원한 지도 32년이 됐어요. 이 모든 것이 지역주민의 성원과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 동안 받은 은혜를 되돌려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고, 그에 따라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치매와 같이 노인건강관리에 역할을 하는 의사, 병원이 되겠습니다.”

-동문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지요.

“메르스 사태를 극복하고 정상화하는데 각계각층에서 활동하시는 동문들이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대고의 힘이 아직 건재하고, 제가 대능인이라는 사실이 몹시 자랑스럽습니다. 그 동안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동문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재경동창회장배 골프대회 170여명 참석

이의범(61회) 아름다운CC 대표, 발전기금 천만원 쾌척

2015 재경동창회장배 골프대회가 9월 13일(일) 12시부터 충남 아산에 위치한 아름다운CC에서 성대하게 열렸다. 이날 대회에는 38회 임승남 동문부터 71회 박정섭 동문까지 170여명이 참가해 선·후배간 골프를 통해 우의를 다졌다.

행사는 전년도 우승팀인 57회의 우승컵 반납을 시작으로 신현일 총동창회장의 인사말, 송인준(42회) 상임고문의 격려사, 원로선배들의 시타, 황성연(51회) 대골회장의 개회선언 순으로 진행됐다.

각 조별로 40개팀이 일사불란하게 “천하

대고” 구호를 외치며 시작된 경기에서 솟을인 3번홀에서 모교 재학생들을 위한 결연장학금 모금행사를 벌여 329만원을 모으고, 이어진 2부 행사의 게임에서 승리한 정영재(54회) 동문이 11만원을 쾌척해 이날 모금된 결연장학금은 총 340만원(2구좌)에 달했다.

이날 아름다운CC의 오너이기도 한 이의범(61회·사진 오른쪽) SG그룹 회장이 당일 수익금의 대부분인 1천만원을 모교발전과 재학생의 학업 증진에 써달라며 결연장학금으로 기탁해 대회에 참가한 동문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경기 결과

〈단체전〉 △우승 : 51회 △준우승 : 48회
△최다참가기수상 : 67회
〈개인전〉 △우승 : 이시구(46회) △메달리

스트 : 손국배(49회) △롱기스트 : 김태형(67회) △니어리스트 : 이기문(47회) △다버디상 : 육동원(58회) △다파상 : 박정섭(71회)

대능코러스, 대한민국 고교동문합창제 참가

10월 9일 오후 4시 여의도 KBS홀에서 열린 합창제에 대고의 공식 합창단인 대능코러스 합창단(단장 박현영·44회)이 참가해 훌륭한 실력을 보여주며 모교의 명예를 드높였다. 이날 합창제에는 모교 외에 전국 8개 남녀 고교 동문합창단 350여명이 참가해 성황을 이루었다.

대능코러스 합창단은 44회가 주축으로 70세가 넘는 동문들이 시작해 막내인 93회 후

배까지 참여함으로써 기수로는 49년, 나이로는 50년이 넘는 세대 차를 극복하고 멋진 화음을 만들어내 많은 이들로부터 찬사를 받았다.

이제 대능코러스 합창단은 수천명 관중 앞에서든 당연히 공연할 정도의 실력을 쌓았다. 앞으로 모교 100주년 행사는 물론 각종 사회공헌활동에도 더 많은 기여를 할 방침이다.



아성장학재단 2학기 장학금 전달식

9월 11일(금) 저녁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에 위치한 아성그룹 연수시설에서 열린 2015년 2학기 아성장학금 전달식은 매우 특별했다.

권오상(49회)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진과 수여 대상자인 후배들이 서울에서 양평으로 이동해 미리 준비한 바비큐 요리로 식사를 하고, 술잔도 나누면서 선·후배가 격의없이 어울린 것. 가을비가 내리는 가운데 천막에

서 서로 술잔을 부딪치며 장학금 수여자와 수령자를 떠나 선·후배가 한마음이 돼 정을 나누는 행복했던 시간은 영원히 기억에 남을 것이다.

4년 전에 시작돼 전체 장학금 수혜대상자 19명 중 군에 입대했거나 입대를 위해 휴학한 후배를 제외한 14명이 수령 대상으로, 이날 3명의 4학년생들은 마지막 장학금을 받았다.



능화반, 서울대학교·KIST 탐방 진로 탐색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모교 능화반 학생들이 지난 5월 26일(화) 개교기념일에 동문 선배들과의 만남과 진로 탐색의 기회를 얻기 위해 서울대학교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을 탐방했다.

이날 양 기관 탐방에는 전 서울대학교 총장과 교육부 장관을 역임한 조완규(26회) 동문을 비롯한 서울대 재직 교수 및 재학생 동문들과 전 KIST 원장을 역임한 금동화(48회) 동문이 참석해 후배들을 격려했다. 이번 탐

방 행사에는 김현규(53회) 교장이 동행, 모든 일정을 함께해 어느 해보다 알찬 체험활동이 되었다.

재학생들은 이날 서울대 입학사정관들로부터 올 대학 입학전형에 대한 설명을 듣고, KIST 탐방에서는 다양한 실험실을 모듬별로 방문, 관심 분야에 대한 심도있는 진로 탐색의 기회를 가졌다. KIST 방문은 금동화 동문의 주선으로 이루어졌다.



송하영(52회)·윤여표(53회) 총장 초청 특강

송하영(52회) 한밭대학교 총장과 윤여표(53회) 충북대학교 총장이 모교 후배들을 위한 명품특강에 나섰다.

특강은 ‘한도 인재육성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선배 동문들을 초청해 후배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9월 1일 모교를 방문한 송 총장은 3학년 담임교사 및 부장교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시청각실에서 재학생 120여명을 대상

으로 특강을 진행했다.

이에 앞서 지난 7월 7일 모교를 방문한 윤여표 충북대학교 총장은 특강에서 “학창시절 일찍이 가장이 돼 어렵게 공부했지만, 그런 역경이 있었기에 오늘의 내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후배 여러분도 미래에 대해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꿈을 키운다면 기회가 올 것”이라고 격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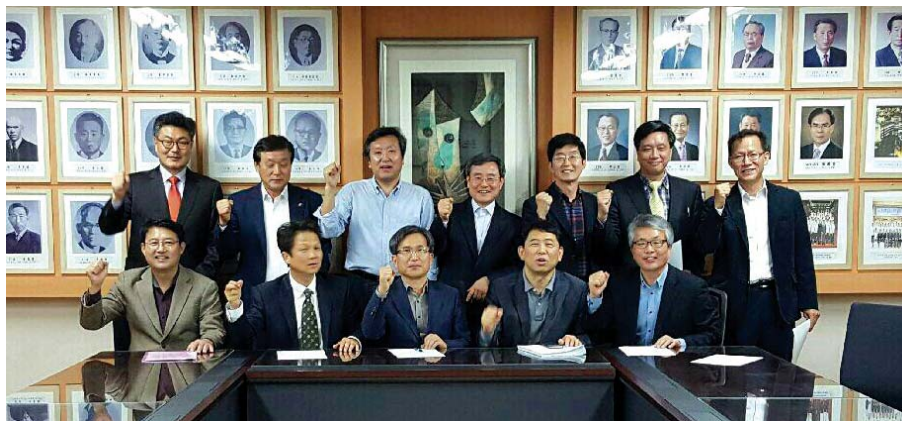
58회 동문 12명, 다양한 직업체험 특강

한도 인재육성을 위한 직업체험 특강이 10월 12일 1학년을 대상으로 열렸다.

12개반에서 학생 개인의 진로 및 동아리에 맞춰 다양하게 진행된 특강은 대덕골(회장 배재성 : 대덕연구단지 58동기 모임)을 중심으로 금기형, 김진철, 김희태, 명완재, 박종선, 배재성, 손수명, 송인암, 오충환, 이동혁, 이찬용, 한정수 등 12명이 참여해 미래와 진

로, 그리고 직업선택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는 등 학생들과 특강을 통해 소통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특강으로 학생들은 각기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강사들과의 면담은 물론 질의응답을 통해 장래 자신이 희망하는 직업세계를 심도있고 재미있게 체험하는 기회를 가졌다.



재학생 41명 ‘희망나눔 천사학교’ 가입

모교는 지난 7월 13일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충남지사와 ‘희망나눔 천사학교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41명의 희망나눔 천사(모교 재학생 중 적십자 희망봉사 정기후원 회원)와 김현규 교장을 비롯한 학교 관계자들이 참석해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 실천을 다짐했다.

‘희망나눔 천사학교’는 대한적십자사의

나눔실천 캠페인으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이웃을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을 길러주는 인성교육의 일환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날 희망나눔 천사학교 협약 체결에 앞서 참여학생을 대상으로 희망봉사 나눔교육의 시간을 가졌다.

한편, 적십자사는 올 상반기 ‘천사학교 희망나눔 장학금 지원사업’을 통해 19개교 32명에게 10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사이언스데이 과학체험부스 운영 참가

모교 과학동아리인 사이언스홀릭(ScienceHolic)(회장 김태수·2학년) 회원들이 지난 4월 11, 12일 이틀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대표 과학축제인 제34회 사이언스데이의 과학체험부스 운영에 참가했다.

회원들은 체험부스를 운영하면서 과학에 관심있는 초·중·고 학생들에게 과학적 흥미, 호기심, 상상력을 펼치게 해 소중한 추억

거리를 만들어주었다.

체험부스 운영의 주제는 ‘나만의 아틀란티스 만들기’로 물유리(규산나트륨)와 다양한 색깔을 가진 금속염들이 만나 금속규산염이 반투명처럼 작용해 아름다운 신세계 아틀란티스를 꾸며보는 체험이다.

행사기간 중 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감이 부스를 직접 방문, 회원들의 활동내용을 즐겁게 관찰하고 격려해주었다.



모교와 동창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46회 회장 강세경 재경46회 회장 이재준
외 46회 동문 일동

총동창회 자문위원 손종현 손주환 이시구

총동창회 이사
강세경(기회장) 권오현 권인순 권희상 김영우
김익배 김종성 백채완 오강수 이성구 이진환

모교와 동창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48회 회장 정규천 총무 오동환
재경48회 회장 신동성 재경48회 수석부회장 겸 총무 장길성

수석부회장 이신석
총동창회 부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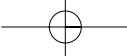
강성희 김기룡 김 운 김홍규 김홍진 남승화 명평근 박광섭 박일동 박종우 백태현 서일환 송권영
오승균 유완준 이계용 이귀중 이기재 이민재 이병주 이승우 이신영 이원택 이유현 이종철 이종국
이진갑 임강수 임동구 장시영 장항진 정규천 정덕영 최성호 홍정의 황규영 황성하

총동창회 자문위원

곽유신 김덕중 김동윤 김용경 김용대 김홍은 남정수 박용재 왕성근 유병학 이남수 이필수 임성우
정만우 조현묵 홍승욱 황인규

총동창회 이사

강구현 강돈묵 강중광 권동원 권홍순 김갑순 김대일 김수환 김일환 김재식 노병호 박성순 박종억
백지현 서용윤 송만수 송인정 신현승 오기환 오동환 유병수 이근두 이명우 이수용 이재준 이종하
이충근 임의순 장래식 정순교 최기식 최병덕 최태균 허문행 홍용태



35회

◆건강산책 친선모임

- 일시 : 2015년 5월 8일
- 장소 : 보문산 산책로
- ◆연락처 및 주소변경
- 길기복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267, 901-1001(죽전동, 내대지마을건영 캐스빌A)
- 김정수 : 대전 중구 보문산로 31, 107-910(산성동, 한밭가든A)
- 한민희 : 대전 서구 가장로 107, 203-1204(가장동, 삼성래미안A)

36회

◆정기총회

- 일시 : 2015년 12월 10일(목) 오후 5시
- 장소 : 월산본가(대흥동 성당에서 부사동 방면 50m)
- 회비 : 1만원

38회

◆제1차 이사회

- 일시 : 2015년 3월 12일 오후 12:30
- 장소 : 미가식당
- 이용만 회장 외 22명 참석
- 신임 회장 선출
회장 : 신용협
- 부회장 : 김철호 박인우 신순철
- 감사 : 김남섭 이석규
- 간사장 : 전성환
- 재무 : 이계웅

◆재경동문 야유회

- 일시 : 2015년 5월 29일
- 장소 : 계룡대, 계룡산, 현충원 일원
- 재경 배수남 회장 외 33명
- 대전 신용협 회장 외 6명 참석

◆바둑대회

- 일시 : 2015년 6월 6일 10:00~17:00
- 장소 : 동창회 사무실
- 신용협 회장 외 19명 참석
- A조 : ①김봉수 ②김수동 ③강신무
- B조 : ①이용만 ②이계웅 ③박인우

◆축하

- 김수동 : 제8회 도낙배 생활체육 전국오픈탁구대회 남70세 3부 개인단식 3위

◆연락처 및 주소변경

- 김근식 : 세종 만남로 92, 811-803(고운동, 가락마을 8단지)
- 남정행 : 대전 중구 목중로 14(중촌동) 남일약국

◆애경사

- 성명환(구명 성낙웅) : 본인상(4월)
- 송인철 : 본인상(4. 6)
- 이덕희 : 본인상(5. 2)
- 이희원 : 자훈(5. 10)
- 이광삼 : 본인상(5. 20)
- 박광영 : 모친상(6. 18)
- 박상록 : 모친상(7. 4)
- 송민영 : 여훈(7. 4)

39회

◆하계모임

- 일시 : 2015년 8월 22일(토) 12:30
- 장소 : 동성삼계탕
- ◆270차 木GO會 성료
- 일시 : 2015년 7월 23일
- 중북을 맞아 15명의 회원들이 신촌집에서 복달임 후 사무실로 이동해 격렬하게 겨룸

40회

◆재경동문 나들이 행사

- 일시 : 2015년 5월 27일
- 장소 : 강원도 양구 두타연계곡, 제4 땅굴
- 참석인원 : 47명
- ◆축하
- 이정치 : 일동제약 대표이사 회장 연임
- 원도길 : <원 교수가 일본에서 만난 사람들> 출간 / 지구문학刊

◆애경사

- 이수종 : 부인상(4. 5)
- 최원수 : 부친상(4. 19)
- 정일근 : 자훈(4. 25)
- 조태훈 : 본인상(4. 29)
- 윤석렬 : 여훈(5. 10)
- 송은섭 : 여훈(5. 23)
- 윤택희 : 모친상(6. 9)
- 양창열 : 여훈(6. 7)
- 임철중 : 자훈(6. 7)
- 서문덕 : 자훈(6. 27)
- 김홍필 : 여훈(7. 4)
- 정운기 : 모친상(7. 20)

42회

◆재경동기 초청 합동 야유회

- 일시 : 2015년 4월 11일(토) 11:30~16:00
- 장소 : 보문산 일원(사정공원)
- 70여 명 참석

◆정기 월례회

- 일시 : 5월 12일(화), 6월 12일(금), 7월 13일(월), 8월 12일(수)
- 장소 : 사랑채

◆동기회 수요 사랑방

- 매주 수요일 정오, 동기회 사무실, 평균 20명 내외 참석
- 가을소풍은 30여명의 친구들이 10월 7일 삼척시 대금굴, 해신당 공원 일원을 다녀옴

◆동기회 그룹 산사이

- 매주 일요일 오전 대전 근교를 등산하는 산사이는 1000회 기념으로 9월 6~13일 중국 운남성 곤명 일원을 관광·등산함

◆재경동기 가을야유회

- 일시 : 2015년 10월 14일
- 장소 : 충북 괴산 화양계곡

◆축하

- 남기재 : 전경려자문봉사단 제16대 위원장 취임(7. 21)

◆애경사

- 최낙영 : 자훈(3. 15)
- 김득래 : 본인상(4. 6)
- 이정우 : 모친상(5. 6)
- 이규홍 : 부친상(5. 24)
- 김광현 : 여훈(7. 11)
- 장홍기 : 자훈(7. 11)
- 곽종철 : 장모상(7. 15)

- 임호원 : 본인상(8. 29)

44회

◆졸업 50주년 기념행사 성료

- 기념식 : 2015년 5월 16일(토) 11:00~15:00, 모교 대강당
- 참석 은사님 : 성선제, 이재섭, 이준희, 임만기, 임선재, 조남호, 황궁연 선생님
- 추억의 수학여행 : 2015년 5월 18(월)~20일(수) 2박3일 남해안 일주

◆축하

- 김충배 : 육군사관학교 제11대 총동창회장 취임(2년 임기)

◆애경사

- 김연주 : 부친상(3. 1)
- 이정복 : 모친상(3. 12)
- 노정석 : 부친상(4. 5)
- 김동진 : 자훈(4. 11)
- 이종훈 : 본인상(5. 9)
- 박상국 : 부친상(5. 12)
- 임한욱 : 모친상(5. 26)
- 이현주 : 자훈(6. 21)
- 유진규 : 자훈(7. 5)

◆주소 및 연락처 변경

- 김종후 : 010-8598-9855
- 양정암 : 010-5205-0094
- 박원규 : 대전 중구 충무로 107번길 100, 109-2902(대흥동, 자이A)
- 설진덕 :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162, 102-703(야탑동, 진흥더블파크A)
- 이상걸 : 인천 남구 문화로 45, 104-1203(관교동, 풀림A)
- 이성배 : 서울 강남구 삼성로 111길 8, 212-103(삼성동, 힐스테이트A)
- 이승찬 : 경기 과천시 관문로 166, 1001-305(중앙동, 주공A)
- 이욱재 : 서울 관악구 은천로 93, 208-505(봉천동, 벽산블루밍A)

46회

◆대전동기회 정기모임

- 일시 및 장소 : 4. 16(목) 19:00 둔산동 샤브웰(해물뷔페) / 7. 16(목) 19:00 둔산동 샤브웰(해물뷔페)
- 참석 : 각 35명
- 내용 : 모교 국제교 전환 추진 소식 등

◆재경동기회 제2차 정기모임

- 일시 및 장소 : 4. 16(목) 18:00 강남구 선릉역 생태명가
- 참석 : 35명

◆재경동기회 산악회 문학촌 둘레길 걷기

- 일시 및 장소 : 2015년 5월 2일(토) 10:00~15:00
- 강원도 춘천시 김유정 문학촌 일대
- 코스 : 김유정 역-실례마을(김유정이 살았던 곳)-금병산(4Km)
- 참석 : 27명
- 내용 : 김유정의 단편소설 <봄봄> 배경지를 비롯, 그의 문학 속으로의 여행

◆회원동정

- 이지원 : 한독노인전문병원에서 파스퇴르 요양병원으로 개명

대전 동구 삼성4가(T. 042-625-5551)

- 강창환 : 재미 LA화가협회 초대전 5. 5~6. 27 Flyaway Gallery(미국 뉴저지)
- ※수상경력 : 2014 대한민국 미술대전 입선

◆주소변경

- 안양로 : 대전 유성구 엑스포로 448, 101-704(전민동, 엑스포A)
- 이상욱 : 충북 증평군 증평읍 초중11길 25-28, 402호(초중리, 수정빌리지)

◆애경사

- 류지상 : 본인상(3. 7)
- 김문범 : 장인상(2. 25)
- 김창만 : 장모상(2. 28)
- 류인환 : 모친상(3. 7)
- 이영구 : 모친상(3. 8)
- 김형진 : 여훈(3. 15)
- 오강수 : 자훈(3. 21)
- 구자신 : 모친상(4. 7)
- 김춘환 : 모친상(4. 11)
- 이재찬 : 자훈(4. 25)
- 이규방 : 부친상(5. 24)
- 강상규 : 여훈(5. 30)
- 최동기 : 자훈(5. 30)
- 김한희 : 자훈(6. 6)
- 손주환 : 모친상(6. 10)
- 오영식 : 여훈(6. 20)
- 안양로 : 자훈(7. 11)
- 김명식 : 모친상(7. 17)

47회

◆축하

- 박찬석 : 한국교회스피치&커뮤니케이션 연구소 개소(천안)

◆애경사

- 김연태 : 부친상(3. 1)
- 남상윤 : 부친상(3. 10)
- 최경목 : 부인상(3. 10)
- 김성준 : 여훈(3. 28)
- 정석희 : 장인상(4. 1)
- 박정운 : 자훈(4. 11)
- 김규한 : 모친상(4. 4)
- 이태직 : 자훈(4. 12)
- 김효태 : 자훈(4. 18)
- 홍영기 : 여훈(4. 25)
- 김성열 : 자훈(5. 24)
- 황용석 : 여훈(6. 13)
- 손주현 : 모친상(6. 10)
- 이길원 : 여훈(6. 21)

49회

◆대전동기회 야유회

- 일시 : 2015년 8월 22일(토) 10:00~18:00
- 장소 : 무주 구천동 계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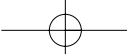
◆개별모임

- 대전동기회 3월 정기모임

- 일시 : 2015년 3월 19일(목) 18:30
- 장소 : 식후경(유성)
- 결과 : 동기 17명 참석
- 찬조 : 모든 경비(송용호 동기가 부담)

- 대전동기회 4월 정기모임

- 일시 : 2015년 4월 17일(금) 18:30



- 장소 : 팔도청국장 둔산점
- 결과 : 동기 17명 참석
- 대전동기회 7월 정기모임
- 일시 : 2015년 7월 17일(금) 18:30
- 장소 : 흥남면옥
- 결과 : 동기 27명 참석

◆애경사

- 신웅순 : 여훈(2. 7)
- 신중호 : 여훈(2. 7)
- 조남원 : 여훈(2. 8)
- 송용호 : 여훈(2. 28)
- 강병도 : 자훈(3. 7)
- 최대영 : 여훈(3. 7)
- 강태현 : 모친상(3. 11)
- 손중구 : 여훈(3. 21)
- 남궁원 : 장모상(3. 23)
- 김현근 : 본인상(3. 24)
- 신창호 : 장모상(4. 11)
- 조권호 : 자훈(4. 12)
- 김선구 : 자훈(4. 24)
- 임하영 : 여훈(4. 25)
- 김시호 : 자훈(5. 9)
- 양희봉 : 모친상(5. 15)
- 김영일 : 자훈(6. 6)
- 김학진 : 부친상(7. 10)

50회

◆행사

- 오공회 골프모임 : 6. 8
- 98산악회 : 7. 18

◆애경사

- 이준한 : 본인상(6. 8)

51회

◆애경사

- 박근태 : 본인상(3. 8)
- 김석현 : 부친상(3. 10)
- 신건호 : 자훈(3. 14)
- 김홍선 : 장모상(3. 14)
- 김창수 : 부친상(3. 18)
- 한용태 : 여훈(3. 21)
- 송준호 : 모친상(4. 17)
- 이정곤 : 자훈(4. 18)
- 윤 길 : 자훈(4. 25)
- 윤민상 : 여훈(4. 25)
- 신관균 : 자훈(4. 26)
- 한윤우 : 여훈(5. 1)
- 김승일 : 여훈(5. 9)
- 김영태 : 자훈(5. 16)
- 정덕진 : 모친상(5. 20)
- 박풍규 : 모친상(6. 3)
- 장필립 : 장모상(6. 10)
- 김병철 : 여훈(6. 27)
- 김갑중 : 여훈(7. 4)
- 신경식 : 부친상(8. 10)
- 김영기 : 부친상(8. 10)
- 정근창 : 모친상(9. 1)
- 김관섭 : 여훈(9. 5)

53회

◆하계야유회

2015년 7월 19일(일)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지 대전 중구 침산동 소재 '청양골가든' 에서 조출하면서 의미있게 치렀다. 이날 행사에는 권선택 대전시장, 김인식 대전시의 회 의장 등 50여명의 동문과 동문가족이 참석해 오붓한 시간을 가졌다.

◆축하

- 이병우 :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장 취임(5. 23)
- 임 철 : 대전평생학습관장(부이사관) 취임(7. 1)

◆애경사

- 이은정 : 장인상(3. 3)
- 오천균 : 장인상(3. 13)
- 이항영 : 부친상(3. 17)
- 권재호 : 여훈(3. 28)
- 최경호 : 자훈(3. 28)
- 박성규 : 장모상(4. 5)
- 김경삼 : 여훈(4. 11)
- 공윤식 : 부친상(4. 14)
- 남종찬 : 모친상(4. 18)
- 이영해 : 여훈(4. 19)
- 민경훈 : 여훈(5. 9)
- 류근철 : 자훈(5. 17)
- 안익현 : 부친상(5. 23)
- 임 철 : 자훈(6. 6)
- 송무영 : 자훈(6. 6)
- 성은모 : 여훈(6. 14)
- 송규상 : 여훈(6. 20)
- 박용배 : 장모상(6. 30)
- 김태훈 : 여훈(7. 4)

54회

◆행사

- 대전동기회 모임 : 8. 10 호두나무집
- 재경동기 야유회 : 8. 15 남한산성 원도집

◆회원동정

- 송병두 : 대전시의사회 회장 당선(3. 1)
- 남진웅 : 신한BNP 파리바자산운용 상근 감사위원
- 김영환 :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당선
- 신웅호 재경회장 : KB손보 상임감사위원 취임(6. 24)

◆애경사

- 오세호 : 본인상
- 이종진(7반) : 모친상(3. 6)
- 이찬구 : 모친상(3. 8)
- 김상현 : 부친상(3. 10)
- 유진우 : 모친상(3. 12)
- 김원봉 : 자훈(3. 21)
- 김창현 : 여훈(3. 21)
- 윤창열 : 장인상(3. 22)
- 김철영 : 결혼(3. 28)
- 송제호 : 여훈(3. 28)
- 배문환 : 부친상(4. 8)
- 양광호 : 모친상(4. 17)

- 정정환 : 자훈(4. 18)
- 최삼규 : 자훈(4. 18)
- 최병렬 : 여훈(4. 18)
- 민선오 : 부친상(4. 21)
- 김선주 : 장인상(4. 23)
- 이현범 : 모친상(4. 23)
- 김경수 : 장모상(4. 25)
- 김현만 : 부친상(5. 7)
- 박천웅 : 자훈(5. 9)
- 호정환 : 모친상(5. 10)
- 한상원 : 부친상(5. 19)
- 서장원 : 모친상(5. 12)
- 이중훈 : 여훈(5. 23)
- 김택규 : 부친상(5. 29)
- 한규혁 : 모친상(5. 30)
- 박세은 : 모친상, 부인상(6. 2)
- 백창현 : 자훈(6. 6)
- 이규상(6반) : 여훈(6. 13)
- 허성건 : 자훈(6. 13)
- 손홍기 : 모친상(6. 22)
- 신명중 : 모친상(6. 24)
- 송인동 : 여훈(6. 28)
- 유영희 : 장모상(7. 1)
- 이기창 : 여훈(7. 4)
- 김진홍 : 부친상(7. 10)
- 임규섭 : 부인상(7. 21)
- 백동기 : 여훈(8. 1)
- 김민경(1반) : 여훈(8. 8)
- 이정오 : 여훈(8. 8)

55회

◆가을체육대회

- 일시 : 2015. 9. 13(일)
- 장소 : 모교 운동장

◆축하

- 김영규 : 개인 사진전 '태조로' 개최
 - 일시 : 2015. 7. 16(목)~22(수)
 - 장소 : 대전갤러리(옛 대전여중 강당)
- 김병수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제7대 원장 취임(7. 16)

56회

◆축하

- 구자현 : 한국조달연구원 원장 취임
- 윤문중 : 세무사무소 개업(4. 24)
- 최양수 : 한화 화약부문 대표이사 승진(6. 12)
- 유상수 : 대한지방공제회 이사장 취임(7. 27)

◆애경사

- 김영진 : 모친상(4. 1)
- 양인규 : 자훈(4. 26)
- 강대원 : 모친상(4. 26)
- 양인규 : 모친상(5. 2)
- 이희명 : 자훈(5. 23)
- 안재봉 : 장인상(5. 27)
- 박강희 : 자훈(5. 30)
- 이상엽 : 여훈(6. 13)
- 장채일 : 여훈(6. 20)
- 유상수 : 여훈(6. 20)
- 최양수 : 부친상(7. 9)
- 장지용 : 장인상(7. 20)

58회

◆사은회 개최



4월 25일 대전 중동 소재 중식당 태화장에서 은사님 열여섯 분을 모시고 사은회를 가졌다. 물품 찬조와 협찬금 등으로 치러진 이날 행사에는 동기 46명이 참석해 회포를 풀었다.

◆애경사

- 여성우 : 자훈(3. 21)
- 배인환 : 부친상(4. 8)
- 최종민 : 모친상(4. 26)
- 남원식 : 모친상(4. 27)
- 송규섭 : 모친상(4. 28)
- 홍석관 : 모친상(4. 28)
- 윤성진 : 모친상(5. 10)
- 이형선 : 장인상(5. 13)
- 이원덕 : 자훈(5. 16)
- 임재남 : 자훈(5. 17)
- 이환승 : 여훈(5. 17)
- 박종선 : 부친상(5. 19)
- 조진영 : 모친상(5. 19)
- 박종수 : 부친상(5. 27)
- 김 택 : 부친상(6. 7)
- 김태경 : 모친상(6. 13)
- 이계영 : 자훈(6. 14)
- 윤창현 : 장모상(7. 23)
- 최진규 : 여훈(8. 22)
- 안대수 : 여훈(8. 29)

59회

◆회원동정

- 박병규 : 총경, 대전 초대 유성경찰서장 부임
- 유재중 : 철공예 개인전 5. 29~6. 11 대전 변방갤러리
- 성백술 : 시집 <복숭아 나무를 심다>(시와 에세이 刊) 출간(7. 18)

◆행사

- 졸업 35주년 기념 지리산 중주

- 일시 및 장소 : 2015년 7월 3일~4일, 성삼재-세석-천왕봉-백무동



- 춘계야유회

- 일시 및 장소 : 2015년 4월 12일, 영광 원자력발전소-고창 청보리밭-선운사

◆경사

- 홍진학 : 자훈(2. 18)
- 이욱헌 : 자훈(3. 14)
- 김성수 : 자훈(6. 6)

• 정채훈 : 자훈(6. 13)
• 김종선 : 자훈(6. 21)
◆연회비 납부안내
모든 59회 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 서울, 경기 거주자 : 10만원
 신한은행 : 110-258-880304 김신철
- 서울, 경기 거주자 외 : 8만원
 농협 453039-52-157331 김항석
◆네이버 카페 가입 안내
http://cafe.naver.com/daego59
대고 59회 동기들의 소식을 알리는 카페입
니다. 59회 동기들은 모두 가입해주세요.

60회

◆한마음 단합대회
• 일시 : 2015년 7월 18일(토)~19일(일)

• 장소 : 충남 천안시 동남구 북면 양곡리
 245 양림관
• 참석 : 총 51명(43명 60회 동기, 동기 부
 인 3명, 은사님 3명, 자녀 2명)
• 내용 : 오후 4시부터 전국에서 동기들이
 모여 족구시합과 노래자랑 및 은사님 세
 분과 정겨운 이야기를 나눔
◆동문동정
• 오용대 : 대전둔산경찰서장 퇴임
• 유영구 : 용운동 예비군 동대장 명예퇴직
◆애사
• 송근욱 : 본인상(7. 11)

61회

◆동기친선 및 단합 라운딩
• 일시 : 2015년 6월 22일

• 장소 : 아름다운C.C.
• 참석인원 : 30명
◆축하
• 이의범 : SG스크린골프 사업 개시
 저렴한 가격으로 시스템 제공, Full HD
 고화질 프리미엄 서비스 구현

62회

◆재경동기 2차 정기모임(가족야유회)
• 일시 : 2015년 6월 6일 10:00~15:00
• 장소 : 경기도 의왕시 왕송호수 일원
• 내용 : 의왕시 자연학습공원과 왕송호수
 둘레길 트레킹을 하며 가족모임(조류생태
 과학관, 철도박물관은 선택 관람)
• 참석 : 20명
◆회원동정

• 고득영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한의
 약정책관으로 승진(5. 6)
• 지영한 : 대전CBS 본부장 승진(6. 22)
◆애경사
• 곽문수 : 모친상(3. 16)
• 권주일 : 모친상(4. 7)
• 김용섭 : 부친상(6. 21)
• 황재준 : 모친상(7. 10)
• 박준용 : 부친상(7. 20)
• 김민주 : 부친상
• 권선목 : 장인상
◆신년교례회 및 정기총회
• 일시 : 2015년 1월 15일 18시
• 장소 : 중경
• 참석 : 이용만 회장 외 33명(재경동기회
 장 배수남, 총무 송재근 참석)

세종시 동문모임 ‘세능회’ 결성

기존의 총동
창회 연가지회
(회장 이재기·
38회)가 세종시
의 출범으로 급
속히 성장함에
따라 동문 간 결
속 강화와 역할



모색 등 세종시 자체 조직 결성의 필요성
이 대두되면서 뜻있는 선후배들이 모여
모임을 구상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세
종시 동문 50여명이 지난 7월 7일 오후 7시
세종시 아름동의 음식점에서 발기인대회를
열고 올 연말 창립대회를 갖기로 결의
했다.

동문회 명칭은 가칭 ‘세능회(가칭)’로
정해졌다. ‘세종시’와 대전고 동창회를 뜻
하는 ‘대능회’에서 각각 이름을 따왔다.
이날 모임에는 최고 원로인 80대의 광창

록(34회) 동문부터 30대의 한승희(81회)
동문까지 각계각층의 동문들이 참석, 선·
후배 간 끈끈한 정을 나눴다. 세종시에는
정부 중앙부처 및 시청, 시교육청, 경찰서,
LH, 지역 대학 등 곳곳에 동문들이 포진
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모임에는 유한식(47회) 전 세종시
장, 유인식(55회) 시교육청 학교혁신과장,
유동환(57회) 시교육청 장학사, 손수명(58
회) LH세종본부 사업관리처장, 류제일(64
회) TJB보도국 편집팀장 등이 자리를 함
께해 동문회 출범과정에 힘을 보탰다.

세종시 동문을 대표해 유한식 전 시장은
“오늘은 대전고 세종시 동문들이 세종
시에 새 등지를 트는 의미 있는 날”이라며
“앞으로 선·후배가 하나돼 세종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날 모임에서는 연말 동문회 설립 전까
지 발기인 모임을 이끌 회장으로 오기영



(60회·세종시 반석정형외과 원장·사진
동문인, 총무에 차정민(66회) 동문이 만장
일치로 선출됐다. 오 회장은 모교와 세
종시 발전을 위한 건배를 제의하면서 “세
종시 발전을 위해 앞으로 대전고 동문회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행정중심도시로 발
전하는 세종시처럼 더욱 도약하길 바란
다”고 말했다.

차정민 총무는 “많은 동문들이 참석해
동문회 창립대회를 가질 수 있는 기쁨을
마련하게 돼 기쁘다”며 “세종시 동문회가
활성화돼 모교와 세종시 발전에 밑거름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동
문들은 그간 세종시에 동문회 조직이 따
로 없었던 아쉬움을 토로하며 모교와 세
종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자는 결의를 다
졌다. 세종시 동문회 가입은 세종시에 거
주, 또는 직장을 두고 있거나 고향이 세
종시인 동문이면 누구나 환영한다. 현재 확
인된 세종시 동문은 약 200여명이지만 정
부세종청사 이전과 시세 확장 등을 감안
할 때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
는 게 동문회의 추산이다.

〈글: 곽우석(74회) 세종의 소리 기자〉

〈기고〉

‘대전고등학교 50년지’ 구입, 동창회에 기증

평소 나와 가깝다고 느끼는 대전고등
학교. 나는 대전고 졸업생이 아니지만 평
소 대전고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
주변 지인들이 많이 졸업한 고등학교, 고
교 평준화가 되기 전 수재들만 갔다는 대
전고. 현재 나의 환경은 대전고에 둘러싸
여 있다.

대전고 출신의 지인들, 사업장과 가까
운 곳에 있는 대전고와 대전고등학교총
동창회, 게다가 사업장과 같은 건물에는
대전고 38회 동창회가 있다.

대전고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던 중
우연히 발견하게 된 것이 ‘대전고등학교
50년지’이다.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은 옛

날 물건을 파는 일이다. 주로 수입품을 취
급하지만 국내에서 물건을 구하는 일도
더러 있어 옛날 우리 물건을 취급하는 사
람들도 많이 접하게 된다. 그러던 중 서
울에서 어느 한 상인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분이 책, 종이 등이 담긴 박스 하나를 나
에게 가져갈 것을 제안했다. 박스에는 수
북하게 종인들이 쌓여 있었다. 그 중 초록
색 표지의 책이 눈에 들어왔고 짧은 한문
실력으로 훑어보자니 ‘五十年誌’라고 제
목이 쓰여 있는 아래쪽에 ‘大田高等學校’
라고 쓰여 있었다.

상인에게 박스를 내가 사겠다고 해 대
전으로 가져오게 됐다. 서울 한복판에서



대전고등학교
에 관한 책,
그것도 개교
50년을 기념
하는 책을 찾
는 일이란 예
상할 수 없는
신기한 일이

었다. 그리고 대전고등학교총동창회에
건네주는 것이 의미 있을 거라 여겨 기쁜
마음으로 기증을 하게 되었다.

대전고등학교가 명문임을 느끼는 것은
졸업생들의 출중함도 있겠지만 오랜 역
사를 가지고 있다는 점과 체계적인 동창
회 운영이 있기에 그렇게 느낀 것 같다.
앞으로도 계속 이어 나갈 대전고등학교
의 역사에 동참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
각한다. 김지혜(오즈엔틱 대표)

〈대능〉 167호 발행을 도와주신
동문님께 감사드립니다

〈대능〉 167호 발행은 순서에 따라 44·
45·46·47회 기별동창회에서 300만원씩
분담, 발행키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
질이 생겨 48회 동창회가 추가로 참여해 5개
기수의 분담금과 개인광고 협찬으로 발행하
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식지 발행의 어려운 사정
을 들으시고 흔쾌히 광고협찬을 해주신 성
필호(44회) 광성기업(주) 대표이사님께 감사
드립니다. 또 48회 기회장단과 동문님들, 김
순식(51회) 사무총장님, 대전고의사회 이철
호(51회) 회장님과 회원님들, 홍종오(52회)
감사님, 장남식(54회) 이사님, 변재훈(58회)
동문님, 광고도 마다하고 발행비를 협찬해주
신 김종구(57회) 감사님의 도움으로 늦게나
마 소식지를 발행하게 돼 감사드립니다.

총동창회 사무국장 이동혁(58회)

기별 분담금 (단위 : 만원)				
기수	기별분담금	모교지원금	등반대회	계
37회 이전 기수 면제				
37회			30	30
38회			50	50
39회			30	30
40회	50		30	80
41회				
42회	50	70	50	170
43회			50	50
44회	100	70	50	220
45회	100			100
46회	100	70	50	220
47회	100	70	50	220
48회	200	70	50	320
49회	200	70	50	320
50회	200	70	50	320
51회	200	70	50	320
52회	150		50	200
53회	200			200
54회	200	70	50	320
55기	200		50	250
56기	200	70	50	320
57회	200	70	50	320
58회	200	70	50	320
59회	200	70	50	320
60회	200	70	50	320
61회	200	70		270
62회	200	70	50	320
63회	200	70		270
64회	200			200
65회			30	30
66회	100	70	30	200
67회			30	30
68회				
69회	100	70	30	200
70회				
72회	60		30	90
74회 이후 기수 면제				

부회장 회비(100만원)	
기수	성 명
46	조용건
48	금동화 김선홍 목이균 신동성 이래훈 이선복 조남용
50	박철근
51	김보균 배재문
52	이대복
53	양호승
54	정영재 한건표

부회장 회비(100만원)	
기수	성 명
55	김성남 조용병
56	류한호 송서영 조동인
57	오세현 육현표
58	조철연
59	송세빈 이견행
60	김대현 송종환
61	변재상 이익범
62	김갑환 최기록
66	김금배
68	차정훈
계	33명

지도위원 회비(30만원) (2015. 10. 10 현재)	
기수	성 명
34	곽영달 정용삼 최기준
36	이근영
37	윤영연
40	김휘배 김명석
43	우정환
48	류제민
50	민진기 이선종
54	서용주
계	12명

지문위원 회비(30만원) (2015. 10. 10 현재)	
기수	성 명
32	장흥진
38	유인의 이종상
40	이정치
42	홍순호
46	박희섭
47	이기문
48	김정일 문호
52	이명수
53	이인복
56	여형구
59	이운룡
계	13명

이사 회비(20만원) (2015. 10. 10 현재)	
기수	성 명
31	성백전
36	한광동
40	박용철 이세복
41	우영화 이창일
43	박재하
44	이운영

이사 회비(20만원) (2015. 10. 10 현재)	
기수	성 명
45	권재석
47	김동욱
51	김대식
53	이규봉
55	안상함 김선진
56	김일휘 김현무 송인수 신희수
58	송인규
59	김명환 배기명
60	이명호
63	박승하
68	김동범 장연태
계	25명

발전기금 (2015. 10. 10 현재)		
기수	성 명	금 액
38	김정배	10만
39	이창호	10만
51	한운우	30만
58	정재근	100만

재경총동창회장배 골프대회	
성명(기수)	금액 및 물품
재경총동창회	100만원
장영철(45)	50만원
신현일(48)	300만원
김보균(51)	100만원
황성연(51)	100만원
조동인(56)	200만원
이상량(46)	필립스 전자 선물(50만원 상당)
목이균(48)	닥터에그 비누선물세트(45만원 상당)
황성연(51)	헤어팩 5세트 180개(360만원 상당)
김영태(51)	선물세트 5점(80만원 상당)
조석준(51)	쿠드그라스 골프퍼터 1점(40만원 상당)
박근태(55)	소주 10박스(30만원 상당)
전익순(56)	동영상 수강권 20매(200만원 상당)
권인채(56)	화장품 3세트(30만원 상당)
신희수(56)	마스크팩 5세트 30개(45만원 상당)
정필경(56)	와인셀러 1(50만원 상당)
길호철(56)	녹용액기스 5(100만원 상당)
민경재(58)	표고버섯 10박스(30만원 상당)
이의범(61)	신사복 2매, 숙녀복 2매(400만원 상당)
이길재(66)	배 10박스(50만원 상당)
67회 일동	에어파스 40개(20만원 상당)
오치영(67)	지란지교 엑스키퍼 100개(150만원 상당)
연성훈(70)	술체원 숙박권 2매(40만원 상당)
김건우(83)	휴대용 치솔세트 200개(100만원 상당)

모교와 동창회의 발전을 지원합니다

대전고등학교 의사회

회 장	이철호 (51회)	이철호비뇨기와
간 사 장	장남식 (54회)	굿모닝동양영상의학과
총 무	박용진 (58회)	박비뇨기와
의전총무	남기남 (59회)	한마음가정의학과
재 무	서지원 (60회)	하나로내과



동양굿모닝

영 상 의 학 과 종합검진센터



동양굿모닝종합검진센터는 영상의학과, 내과, 유방·갑상선외과 등 각과 전문의료진이 직접 진료합니다.

- 내과, 외과, 영상의학과 전문의 4인 진료
- 위·대장내시경, 유방·갑상선암 검사, 각 부위별 일반 X-선 및 특수 X-선 검사, 초음파 검사, CT 및 MRI 검사, 종합건강검진



건강검진 항목

-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본인 부담금 없음 또는 10%)
기본검진 / 생애전환기검진 / 국가5대암검진(위암·대장암·간암·유방암·자궁경부암)
- 종합검진 기본종합검진 / 여성정밀검진 / 노년정밀검진 / 뇌질환(중풍) 정밀검진 / 부위별 특화정밀검진 / 예비부부검진
- 기타검진 채용검진 / 공무원검진 / 기업검진 / 예방접종(독감, 폐렴, 대상포진, 간염, 자궁경부암)

원장 장 남 식(54회)
이진희 지종태 민병철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 90-2
롯데백화점 맞은편 굿모닝클리닉 1, 2층
예약 / 상담 **042)523-1114~5**

기별 분담금 (단위 : 만원, 11. 4. 현재)

기수	연회비	정기총회	등반대회	송년의 밤
44			50	
45		120		
46	60	120	50	
47	60	120	50	
48	60	120	50	
49	60	120	50	
50	60	120	50	
51	60	120	50	
52				
53	60	120	50	45
54	60	120	50	45
55	60	120	50	45
56	60	120	50	45
57	60	120	50	
58	60	120	50	45
59	60	120	50	
60	60	120	50	45
61				
62	60	120	50	45
63				
64	60	120		45
65	60	120		
66	60	120		
67				
68	60	120	50	45
69				
70	60	120	50	45
71				
72				
북가주지회	106,896			
계	12,106,896	2,520	900	450

부회장 회비(100만원) (11. 4. 현재)

기수	성 명
48	명평근 박일동 백태현 오승균 이승우 이신석 이유현 이종국 이종철 이진갑 정덕영
49	이상현
58	김경수
59	나경수
계	14,000,000

자문위원 성금(30만원) (11. 4. 현재)

기수	성 명
36	권선우 임갑환
37	김종두
39	박한규 백남원
40	천명운
46	손주환 이시구
48	김용대 김홍은 왕성근 정만우 조현묵 홍승욱
49	박병석 송용호 이기우
50	남방현 정상철
52	박성호 송하영
53	정상직
54	강인빈 정태진
55	박백범 정규형
56	구본석 김충현
58	오충환 이광우
60	정용기
63	이장우
계	9,600,000

이사회비(10만원) (11. 4. 현재)

기수	성 명
33	김주경
34	김용환
38	조봉연
39	유동원 유성홍 장흥천 한주철
40	김민철
41	김효경 명건식 민동일 전수병
42	남명진
44	김명수
45	강준목 박대범
46	권희상 김영우 이진환
47	권두성 박정운 이원희
48	강구현 강돈목 강중광 김갑순 김수환 노병호 백지현 서용운 오기환 오동환 이근두 이재준 정순교 최기식 최병덕 허문행 홍용태
49	강인규 김원명 이상익 정현철 천윤희 함덕순
50	주 성
51	권용대 남구현 박기서 서광용 신경식(2016회계 포함) 임범수 전병구 전복진 주광섭
52	김덕배 김정모 유하용
53	구본관 김광석 김윤동 오천균 이은정
54	김원경 김원봉 박정중 송병두 신현교
55	김갑동 류재영 이동형 이상구
56	권희덕 김영상 남북현 민장기 오택진 윤형식 이종엽
57	송영곤
58	권선국 김중수 김한국 명완재 배재성 손근수 전태곤
59	김석주 김재한 맹완영 이동구 진영주
60	명광직 윤여백 이항섭
61	김종무
62	김창수 이대성 이용배
63	박희운 이보행
64	김성우 문선재 박범정 박종민 이명만 이인성 이창우
65	김길수 박종인 임홍준
67	고영호 김광중
68	김상수 김창선 김현채
69	박 훈
70	이상민 정영환
71	명노신
73	송학준 최영균
74	이승찬
계	12,400,000

2015 정기총회 협찬(현금) (단위 : 만원)

성명(기수)	금액	총동창회 직책 / 직장·직책
신현일(48)	1000	총동창회장/보문통상(주) 대표이사
박종윤(33)	100	고문/주세창 회장
김종두(37)	30	자문위원/前 교육공무원
이규성(37)	30	고문/KORAMCO자산신탁(주) 회장
김정배(38)	10	前 동장
김각영(41)	30	고문/김각영법률사무소 변호사
박건영(42)	50	고문/서울정형외과 원장
송재준(44)	50	재경 대경회 회장/한모기술(주) 대표이사
정현화(47)	50	자문위원/세풍지업상사 대표
이기재(48)	300	부회장/주제이스통상 대표이사
이신석(48)	50	수석부회장/대전보건대 교수
김원명(49)	20	이사/배재대학교 입학사정관
황성연(51)	30	자문위원/ (주)UPC 회장
김형태(52)	30	부회장/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변호사
유하용(52)	10	이사/파랑새기획 대표
이명수(52)	30	자문위원/충남 아산시 국회의원
김영대(53)	10	부회장/주팩검코리아 국내사업본부 이사
송병두(54)	30	이사/대전시의사회장, OK재활의학과 원장
김용옥(56)	100	대전도시환경산업 광산기업(주) 대표
박균익(56)	100	부회장/주아이씨푸드 대표이사
문성식(58)	30	부회장/법무법인 C&I 대표변호사

2015 정기총회 협찬(현금) (단위 : 만원)

성명(기수)	금액	총동창회 직책 / 직장·직책
변재훈(58)	30	타임문고 대표이사
김석민(62)	30	대전제일화환 대표
김경남(63)	30	정다운플라워 대표
기회 동창회	10	
모교	100	
재경동창회	100	
청주지회	50	
대흥동 내집식당	10	
합계	2,450	

2015 정기총회 협찬(물품)

성명(기수)	직장·직책	품목
임용철(53)	대전대학교 총장	한방소화제 100통 (100만원 상당)
박근태(55)	(주)더맥키스컴퍼니 대표이사	(린) 소주 600병 (70만원 상당)
이종민(66)	(주)메디스타 이사	가정용 저주파 자극기 10대 (60만원 상당)
하나은행 대흥동지점		기념타올 250장 (100만원 상당)

대능가족 등반대회 협찬(현금) (단위 : 만원)

성명(기수)	금액	총동창회 직책 / 직장·직책
신현일(48)	300	총동창회장
박종윤(33)	50	고문/주세창 회장
김종두(37)	30	기회장 겸 자문위원/前 교육공무원
이규성(37)	30	고문/KORAMCO자산신탁(주) 회장
이윤기(37)	10	기회장 /前 경찰공무원
이동호(38)	10	재경 대능산악회장
이신석(48)	50	수석부회장/대전보건대 의무행정과 교수
유하용(52)	10	이사/파랑새기획 대표
강인빈(54)	50	자문위원/에스와이종합건설(주) 대표이사
김용옥(56)	100	대전도시환경산업 광산기업(주) 대표
권선국(58)	10	이사 /성모가정의원 원장
강석만(58)	10	강석만 치과원장
금기반(58)	10	이사/대전시 도시계획과
오충환(58)	10	자문위원 / (주)코스모 E&F 대표이사
성진형(58)	10	가톨릭병원 원장
명완재(58)	30	기회장/한화케미칼 중앙연구소 상무보
김정일(63)	10	
이보행(63)	10	이사
고영호(67)	10	이사/주충남도시가스 고객지원팀 과장
대동모	100	대전고 동문을 사랑하는 모임
교능회	50	대전 교육계에 종사하는 동문들의 모임
62회동기회	30	
대흥동 내집식당	10	
합계	940	

대능가족 등반대회 협찬(물품)

성명(기수)	직책 / 직장·직책	협찬물품
오수정(44)	대청병원 원장	구급차량 및 이동진료소
장윤선(50)	천년해물마을 대표 (40만원)	해물찜 4인분 티켓 10매
박근태(55)	(주)더맥키스컴퍼니 대표이사	린소주 600병 (70만원)
이광우(58)	갤러리아백화점별관 이광우치과	닥터에그비누15세트, 크림3개(50만원)
전태곤(58)	대한종합상사	가정용 주방세트5개 (10만원)
이재영(67)	서광자원산업 대표	삼푸 10개 (10만원)

종오당 약국

대표 약사

홍 종 오 (52회, 총동창회 감사)

대전 성모병원 지하주차장 입구

042)254-4374~5

e-mail: BELL5@KPAC.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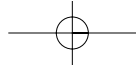
세무법인 대청 둔산지점

세무신고·기장대리·불복청구

대표 세무사 전 명 수 (47회)

Tel. 042)471-1472 Mobile. 010-5337-9710

대전시 서구 둔산로 18, 701호(둔산동, 향촌월드프라자)



母校出身을 歡迎 합니다.

光成企業(株)外, 會長 成弼鎬

唐津, 安山, 蔚山, 光州
알라바마, 北京, 江蘇

자랑스러운 100년 전통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100년 전통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전국의 수재들이 모인 학교, 수많은 인재를 배출한 명문 대고, 그러나 이제 자부심의 끝자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교육제도가 낡은 대참사라는 푸념도 더 이상 허망한 마음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실력을 키우는 것 외엔 길이 없습니다. 100년 전통을 자랑만 할 때가 아닙니다.

●변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교의 침체는 후배들 잘못이 아닙니다. 세상이 변할 때 우리만 애써 모른체 한 업보입니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후회한들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준비하는 자에게 기회가 온다’고 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때입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천추의 한이 될 것입니다.

●소수의 망상이 모교를 어렵게하고 있습니다.

어디든 반대하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합리적인 반대, 때로는 그게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영웅주의에 사로잡혀 선·후배도 몰라보고 극단적 언행으로 모교에 돌을 던지는 극소수 졸업생들이 문제입니다. 이들은 외부 불순세력과 손잡고 사익(私益)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기회를 또 날려버릴 수는 없습니다.

과거 신도심으로 학교를 옮길 기회를 일부 동문들의 반대로 놓쳤다고 한탄하면 뭐합니까? 그때 반대한 분들도 지금처럼 세상이 변할 줄 알았다면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면 대고의 미래는 없습니다.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대능인의 힘을 보여줘야 합니다.

지금 상황이 매우 엄중합니다. 일부 지역 정치인들이 자기 선거구로 국제고를 가져가려는 움직임을 노골화하고 있고, 교육 당국은 이 눈치 저 눈치 보느라 엉거주춤한 상태입니다. 우리의 확실한 의지를 보여주지 않으면 여론 왜곡이 불보듯 뻔합니다. 대능인의 단합된 힘을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대능> 167호를 발행을 마치고

지난 7월에 총동창회 신입 사무국장으로 부임한 58회 이동혁입니다. 동문 여러분께 지면으로나마 인사 올립니다.

아뢰을 말씀은, 총동창회 소식지 <대능>은 지금껏 기별 분담금으로 발행비를 충당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167호는 순서에 의해 44회, 45회, 46회, 47회 기동창회에서 300만원씩 분담해 발행키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정이 여의치않아 48회 기동창회까지 참여해 5개 기수의 분담금과 광고협찬으로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167호 발행비 염출의 어려움을 들으시고 흔쾌히 광고를 협찬해주신 성필호(44회) 부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48회 기회장단과 동문님들, 김순식(51회) 사무총장님, 대전고의사회 이철호(51회) 회장님과 회원님들, 홍종오(52회) 감사님, 장남식(54회) 이사님, 변재훈(58회) 부회장님, 광고도 마다하시고 도와주신 김종구(57회) 감사님의 100만원이 있었기에 늦게나마 소식지를 발행하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국의 전통 있는 고등학교 동창회보가 매회 1만여부 남짓 발행되는데 비해 <대능>이 그동안 2만5천부씩 발행해 2만2천여 동문님들께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었던 것은 매년 10%정도 반송되는 우편물에 대해 사무국에서 일일이 새 주소지를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해 왔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소식지 발행비용의 상승으로 더 이상 현재의 부수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발행비용 상승은 분기별로 발행되는 <대능>이 ‘정기간행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할인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166호의 경우 우편료 포함, 총 발행비용이 2,100만원이나 돼 이런 상태로는 연 3~4회 발행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를 계기로, 총동창회는 향후 소식지 발행을 비롯해 제반 운영경비를 절감하고, 저비용으로 동문 간 소통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겠습니다. 또 소식지 발행 면수와 횟수를 조절해 년 1회는 전 동문들께 발송(39회 이전 기수와 77회 이후 기수는 횟수에 상관없이 전원 발송)해 현 주소지를 파악하고, 나머지는 PDF파일 상태로 홈페이지와 밴드 게시, 문자발송 등으로 다양화할 계획입니다. 다만, 44회 선배님들처럼 기동창회에서 동기분들에게 직접 배포해주실 경우에는 필요한 부수만큼 보내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말씀은, <대능>이 대전고 동문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높이고, 선·후배 간 끈끈한 정을 잇는 교량 역할에 충실하려면 지속적으로 발행되어야 하는 만큼 동문님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대능> 발전을 위한 지혜와 고견(高見)을 주시면 적극 반영해 최고의 지면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이동혁(58회) 올림

<정정> 1면 동문동정 기사 중 손윤(56회)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편집자의 실수로 잘못 게재되었습니다. 박춘섭(57회) 기획재정부 예상실장은 예산실장의 오기(誤記)입니다. 두 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역대 동창회장님 전원이 찬성하셨습니다

●총동창회는 모교의 국제고 전환에 대해 적극 찬성하며, 학교 측의 제반 절차 이행 활동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우리 고장 대전의 우수한 학생들을 타시·도에 빼앗기지 않고 모교뿐 아니라 지역사회와 대전 교육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조치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총동창회는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전 동문을 대표하는 총동창회 부회장, 자문위원, 이사 등 임원진과 기별 동창회를 대표하는 기별회장단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절대 다수의 찬성으로 국제고 전환 신청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학교 측에 전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문단(역대 회장으로 구성, 아래 명단)으로부터도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를 약속받았습니다.

●또한 학부모 대표로 구성된 대전고운영위원회도 절대 다수의 찬성으로 국제고 전환 신청에 동의했고, 교육부의 조건부 동의 또한 총동창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절대 다수가 찬성해 수용하기로 의결함으로써 현재 대전시교육청의 국제고 전환 고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총동창회는 동문 여러분의 애정어린 관심과 협조로 모교의 국제고 전환을 위한 남은 절차가 원만히 이행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총동창회가 앞장서 모교와 동문뿐 아니라 지역사회 발전과 대전 교육의 미래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동문님들의 성원과 격려가 힘이 돼 우리 고장 대전의 청소년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 발전하는 데 모교 대전고등학교가 밑거름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동문님들 가정의 다복을 기원합니다.

2015년 10월 25일

대전고등학교총동창회 회장 신 현 일

국제고 전환에 지지와 동의를 해주신 총동창회 고문(전직 회장)

• 제7·8대 총동창회장	박원석 (20회·전 공군참모총장)
• 제12대 재경동창회장	지현택 (26회·전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 제15·16대 총동창회장	박영규 (28회·삼화모터스(주) 회장)
• 제12·13대 총동창회장	천영성 (29회·전 공군작전사령관, 전 국회의원)
• 제10·11·12대 재경동창회장	천영성 (29회·전 공군작전사령관, 전 국회의원)
• 제15·16대 재경동창회장	박준병 (31회·예비역 육군대장, 전 국회의원)
• 제17대 재경동창회장	나웅배 (32회·전 경제부총리)
• 제18대 총동창회장	박종윤 (33회·(주)세창 대표이사)
• 제18·19대 재경동창회장	송 자 (34회·전 교육부장관)
• 제20대 재경동창회장	김종구 (38회·전 법무부장관)
• 제19대 총동창회장	이동호 (35회·전 내무부장관)
• 제20대 총동창회장	이규성 (37회·전 경제부총리)
• 제21대 총동창회장	심대평 (38회·지방자치발전위원장, 전 충남지사)
• 제22대 총동창회장	김각영 (41회·전 검찰총장)
• 제21대 재경동창회장	김각영 (41회·전 검찰총장)
• 제23대 총동창회장	박건영 (42회·전 대한적십자사 대전·충남 회장)
• 제22대 재경동창회장	송인준 (42회·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 제23대 재경동창회장	김주필 (44회·병원장)
• 제25대 총동창회장	강창희 (44회·전 국회의원)
• 제24대 재경동창회장	장영철 (45회·전 서울시체육회 상임부회장)

대능가족 등반대회 재경동창회 협찬금품

(단위 : 만원)

기별 분담금 (50만원×19기수)	950	38회, 42회, 43회, 44회, 46회, 47회, 48회, 49회, 50회, 51회, 52회 54회, 55회, 56회, 57회, 58회, 59회, 60회, 62회
기별 분담금 (30만원×8기수)	240	37회, 39회, 40회, 64회, 66회, 67회, 69회, 72회

성명(기수)	금액	총동창회 직책 / 직장·직책
김각영(41)	30	상임고문 / 김각영변호사사무실
장영철(45)	30	명예회장 / 대한당구연맹 회장
오세빈(47)	30	자문위원 / 변호사
황인호(47)	30	기 회장 / 산부인과 의사
신현일(48)	300	총동창회장 / 보문통상(주) 대표이사
박철근(50)	20	부회장 / 에스컴 대표이사
황성연(51)	100	대골회장 / UPC 회장
양호승(53)	30	부회장 / 법무법인 화우 대표변호사
조동인(56)	300	부회장 / 해커스토익교육그룹
김대현(60)	50	부회장 / (주)페이펄유통 대표이사
김현규 교장	100	
대전총동창회	100	
계	1,120	
합계	2,310	

김진철(58)	에그비누세트(40만원)	TJV(주) 대표이사
---------	--------------	-------------